

‘청도 보갑사 영담한지미술관’ 탐방



“전통 한지에는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영담 스님(사진 왼쪽).



영담한지미술관 내부. 한지에 천연 염색을 해서 그린 일명 영담 스님의 한지와 1백여점이 벽에 걸려있다.

천년의 깊이 한지의 세계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제지술은 스님들에 의해 발전돼 왔는데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7월 31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산골마을에 위치한 보갑사 영담한지미술관 관장인 영담 스님이 마흔 신도들에게 한지(韓紙) 특강을 하고 있었다.

“지천년견오백(紙千年綱五白)”. 종이는 1천년, 비단은 500년을 간다는 말입니다. 1966년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유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영담 스님의 설명이 이어진다. “8세기에 만들어진 인쇄본이 흐트러진 하나 없이 보존된 것은 한지의 오랜 생명력에서 비롯된 것이죠. 한지 속에는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 있어요. 한지에 새겨진 정교하면서 섬세한 그 무늬를 따라 칼을 움직이고 있을 때면 몇 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영담 스님에 의해 다시 탄생한 한지 그림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청도의 봄’ ‘산’ ‘녹야원’ ‘니르바나의 꽃’ ‘순회’ 등 100여점이 걸려 있는 미술관 내부는 아담하고 소박했지만 전통이라는 첫물을 녹여 화려한 현대적 감각의 전통 한지를 양산해 내는 거대한 영광로 같았다.

출가 후 30여년 동안 ‘한지’를 화두로 삼고 연구 정진해 온 영담 스님이 한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6살 때부터다. 한의사인 아버지 덕분에 수없이 분 절약 붓지가 스님의 눈에 비친 첫 한지다. “한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딱지를 접어두면 한지는 묵처럼 절대 뒤집어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딱지 왕이었어요. 하하하”

영담 스님도 그 당시엔 한지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몰랐다. 닭나무를 삶아서 벗긴 백피(白皮)를 잿물에 4~5시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하고 멧진 닻을 지름에 넣어 200번쯤 풀대로 힘차게 저어 잘 풀어준 후 다시 물기를 짜고 말려서 다듬고 방망이질까지 해야 한 장의 종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성과 공이 들어간 전통 한지는 아흔 아홉 번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만져 백번의 손

길이 닿게 된다고 해서 ‘백지(百紙)’라고도 불렀다.

“출가 전부터 한지에 관심이 많았지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지 배우기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은 20대 중반 출가 후 원주서 한지 제조 전문가인 홍관하 할아버지에게 사사하면서 부터입니다. 홍씨는 13살 때 영변 약사사에서 스님들하고 종이를 떠본 경험이 있어 사찰 전통방법의 제지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니다.”

한지 그림 2천여점 중 1백여점 전시 관객들 “평생 한번 보기 어려울 듯” 산골 박물관 불구 입문 타고 ‘인기’ 사경 및 한지체험 템플스테이 계획

영담 스님은 단지 종이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케일 속 시금치 밤 도토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염료로 푸른색과 어두운 갈색색톤의 색채에 부조회화 기법을 사용해 나무와 숲, 꽃 등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는 한지 그림을 개발했다. 일명 영담 스님의 한지화(韓紙畵)다. 화면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마치 오랜 세월 두께에서 벗어나 모습을 드러내는 유적 발굴의 유물처럼 화면으로부터 어렵게 이 떠오르고 있다. 또한 어떤 그림들은 직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정교하다.

멀리서 보면 직접 그린 것인지, 종이로 붙인 것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객들이 스님의 한지 그림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개장한지 1백일도 안됐지만 벌써 5백명 이상이 이 외진 산골마을에 위치한 한지 박물관을 다녀가며 방명록에 적어 놓은 글들은 더욱 이를 실감나게 해준다.

“처음 본 한지의 세계, 선경에 들어왔다 갑니다.”(서선아/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매실동)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하는 작품들을 보게 돼 한없이 영광스럽습니다.”(최상숙/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작품 감상하고 갑니다.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신경순/대구 수성구 만촌1동)

영담 스님에게 꿈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올해 안에 시행된다. 2박3일 정도 한지박물관에서 한지도 만들고 또 자신이 만든 종이에 사경도 하는 ‘사경참선 템플스테이’를 여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사찰 전통 한지 공예학교를 만들어 전통 한지의 맥을 이어 나가는 일이다.

“제 종이 잘 나오는 것보다 제자들의 작품이 원하는 대로 멋지게 근사하게 나올 때 보람을 배로 느끼죠. 비록 시골의 작은 미술관이지만 제 자리에서 묵묵히 사찰 전통문화를 누른가에게 전수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철한 사명감이 샘솟는 겁니다.”

청도/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영담한지미술관 전경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음니반메울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이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부묘품(중, 대)
 · 묘연화경(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중)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반단,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현도, 재배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을 기를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소) 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풍겨져 나와 예배사에도 사용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직경 6~6.5cm
 가격 95,000원
 소원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분량이 희박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1500°C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힘과 93% 원적외선, 높은음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이 파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육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영물을 의미하는 파도 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원(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품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